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도시 속 자연의 원본과 복제에 관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임 성 훈

도시 속 자연의 원본과 복제에 관한  
표현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공공미술전공

임 성 훈

# 인 준 서

임성훈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특수대학원

## 국 문 초 록

오늘날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면 자연은 ‘재개발’이라는 구호 앞에 밀리고 도시가 세워졌다. 산을 허물고 강을 매워서 무언가를 짓고 그곳엔 아파트나 그로 인해 생겨난 부산물들, 가령 거대한 쇼핑센터나 놀이공간을 표현하는 것, 아니면 아파트 공간 디자인의 깔끔한 표피만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에게 특화된 공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자연의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공장에서 찍어 나오듯 규격화 된 건물들을 세우기 위해 자연은 가로 세로 규격이 나뉘지고 그에 거슬리는 것들은 매워지고 깎이게 되어 자연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치수화 하고 제도화시킨 그 텅 빈 땅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을 모방한 곳을 집어넣었다.

그저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그 훼손된 자연, 대자연을 번역해 모사한 인공자연을 품고 살아가는 기괴한 면을 볼 수 있는 곳, 이러한 인공자연을 보며 자연과 공존하고 있다는 착각을 갖게 하는 공간은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이다.

오늘날의 이러한 모습을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소비사회(1970)』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대인은 물건의 기능보다는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하였고,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한다는 시뮬라시옹(Simulation)이론, 더 이상 모사할 실체가 없어지면서 실체보다 더 실체 같은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가 생산된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전반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발상으로 생긴 문제점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사물’로 여기

고 그것을 자산으로 환산하고 소비하는 것, 그리고 그 소비가 기능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의 이미지로서 소비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자연을 하나의 이미지로, 시뮬라크르(simulacre)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보다 더욱 자연스럽고 깔끔하고 잘 다듬어진 공원들과 판타지영화에서 나올 법한 아름다운 하천의 모습들, 그곳을 거닐고 있노라면 마치 박제된 자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유년시절 추억을 함께 했던 자연은 무엇이었으며 지금의 시뮬라크르처럼 되어버린 자연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모습과 생각이 본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자연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작품을 형상화하는데 동기가 되었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의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소재의 상징성과 표현방법, 작품의 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제 1 장 서론에서는 본인 작품에서 도시 속 자연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작품의 제작 동기와 연구 목적을 기술 하였다.

제 2 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이론적 배경과 형태적 근거를 서술하였으며 개별 작품의 설명을 위하여 작품의 이미지를 통해 제작의도와 제작 기법 등을 서술하였다.

제 3 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총괄하여 본인 작품의 궁극적 목적을 서술하고 앞으로의 작업관을 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국 문 초 록

I. 서 론 .....	1
II. 본 론 .....	3
1. 작품의 형성 배경 .....	3
1) 소비로 이루어진 사회 .....	3
2) 도시 속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	6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	9
1) 재료적 특성 .....	9
2) 형태적 특징 .....	9
3. 작품분석 .....	12
III. 결 론 .....	26

## 참 고 문 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 품 1】 nature in the city #1 .....	12
【작 품 2】 nature in the city #2 .....	14
【작 품 3】 nature in the city #3 .....	17
【작 품 4】 nature in the city #4 .....	20
【작 품 5】 nature in the city #5 .....	23

# I. 서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소비 사회』에서 현대인은 물건의 기능보다는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하였고,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한다는 시뮬라시옹(Simulation) 이론, 더 이상 모사할 실재가 없어지면서 실재보다 더 실재 같은 하이퍼리얼리티(Hyper-Reality)가 생산된다는 이론을 제창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사는 환경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약 20여 년 전만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부분은 논과 밭이 대부분인 농촌의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로서 부족한 도시의 기능이 점점 팽창해 나가며 수도권일대는 ‘재개발’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좀 더 세련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해갔다. 유년시절 논과 밭에서 나는 개구리 울음소리와 계절마다 변하는 산과 들의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던 자연(自然)은 사라지고 대신 반듯하고 획일화 된 도시 공간속에 들어섰다.

이렇게 본래의 자리를 내어주고 도시 속에 존재하게 된 자연은 자연의 모습을 하고 있는듯하나 앞에서 말한 시뮬라시옹 이론에 따라 소비되어지는 많은 기호들 중 하나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기호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주장한 현대 디지털 기술복제 시대 속에서 원본이 존재하는 복사본이 아니다. 원본조차도 찾을 수 없는 시뮬라크르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었다. 디즈니랜드는 과연 우리의 세상을 재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재현해서 살고 있는지 모호한 상황은 재개발로 깨끗해진 한국 도시의 몇몇 건설회사에 의해 구축된 아파트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만 있던 예전 아파트촌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것들을 없애고 과거 마을과 같이 자연 순화적 공간을 구성한다. 공동체 구성원이 친밀하게 모여살 수 있는 우물과 같은 공동만남의 장소,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 작은 물길 등을 만들고 맑은 공기확보를 위해 자동차는 모두 지하에 저장한다. 우리는 예전보다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국 새로운 공간도 자연을 모방하는 시물라크르처럼 생각한다.

이러한 모습과 생각이 본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자연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작품을 형성화하는데 동기가 되었다.

본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진짜 자연이 그림다"라는 메시지를 소통하고자 표현하였고 "진짜 자연이 그림다"라는 소통을 통해 도시 속 자연을 되돌아보며 걸모습에 속지 않고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위의 생각을 토대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한다.

왜 자연이 하나의 소비되는 이미지로 변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이미지화된 도시 속 자연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위 현상을 통해 느껴지는 본인의 생각, 공장에서 찍어 나오듯 천편 일률적인 모습과, 기능이 아닌 이미지로서 소비되어지는 자연을 표현하고자 한 본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의 형성 배경

#### 1) 소비로 이루어진 사회

우리는 시뮬라크르(simulacre)로 가득 찬 도시 속에 살고 있다. 그 속에는 개발이라는 구호 아래 자연을 밀어내고 ‘모조품’ 같은 인공자연이 들어서있다. 소위 가짜자연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환경 속에 존재하는 가짜자연은 진짜 자연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자연보다 더 자연 같은 모습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도시 속 자연을 통해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도시생활로 인해 생긴 어지러운 마음을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다. 도시 속 자연공간이 위로를 받으며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임은 다행이지만 정작 우리는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사회에서 단순히 자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가짜와 진짜, 진짜보다 더욱 진짜인 가짜의 등장,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는 요즘사회의 모습인 소비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사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소비사회의 시작은 19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는데, 처음으로 소비사회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D. 바스틴(Daniel Bastin) 이다. 미국이 제일 먼저 소비사회가 된 뒤, 20세기에 들어와서 서유럽의 여러 나라도 소비사회시대에 들어갔다.

그러나 분명한 소비사회가 나타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소비행위는 생산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인간은 어느 시대

에서나 소비행위를 했다. 그러나 일찍이 소비사회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소비의 사회적 기능이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볼 때 다르기 때문이다.

소비행위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사람은 빵 없이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소비행위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옛날의 소비는 이 형태의 소비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신체적 욕구의 충족이 아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이다.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기 위하여 물건을 사거나 소비한다. 이런 경우 소비는 물건의 효용성과 기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징기능으로 평가된다.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19세기 전반까지의 소비는 제1형이었고, 현대의 소비는 제2형이다. 문화적 욕구로 인해서 야기되는 소비는 의례적(儀禮的) 소비라고도 한다. 경제학자 T.B.베블린(Thorstein Bunde Veblen)<sup>1)</sup>은 『유한계급의 이론(1899)』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신을 타인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물자를 과소비하는 것을 현시적(顯示的) 소비라고 했고,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는 상징교환(象徴交換)으로서의 소비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학자로는 『상징교환과 죽음(1976)』을 쓴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등을 들 수 있으며, 마르셀 모스(Marcel Mauss)<sup>2)</sup>가 쓴 『증여론(1924)』에 나오는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포틀래치<sup>3)</sup>가 그 전형이다. 의례적 소비는 예로부터 있었으나 대개 특권층과 특정시기·장소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대 소비사회는 보통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현시적 소비를 할 수 있다.

- 1) 미국의 경제학자로 베블린 효과를 명명한 사람으로 과시적 소비와 지위경쟁이론을 처음으로 발견한 경제학자이다.
- 2) 프랑스의 종교 사회학자겸 인류학자로 뒤르켐학과 확립에 공헌하였다. 그의 학문적 특색은 기존의 종교·주술 2원론에 대하여, 더 근원에 있는 신비적인 힘(마나)에 관하여 주장한 점이다. 주요 저서에 『증여론』, 『희생에 관한 연구』(위베르 공저)등이 있다.
- 3) 북미 원주민의 말로 '선물'이란 뜻인데, 보통은 선물을 주면서 크게 벌인 잔치를 가리킨다. 많은 손님을 초대해 생선과 고기, 모피와 담요 따위를 나누어줌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또 더 큰 포틀래치를 열어서 자기도 못지않다는 걸 보여줘야 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다면 예의에 어긋날뿐더러 선물을 준 사람에게 예속된다는 걸 뜻하기에 과도한 잔치를 경쟁적으로 벌였다고도 한다.

신분제도가 확실하던 시대는 기호의 의미가 그야말로 명백했다. 어떤 종류의 복장이나 말씨는 어떤 특정한 신분과 단단히 연결해주었고, 다른 신분의 기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사회계층이 무차별적으로 기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기호는 의미의 틀에서 해방되어갔다. 해방되어, 실체를 잃어버린 기호는 ‘모조품’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특성을 장 보드리야르는 『시물라시옹(1981)』<sup>4)</sup>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의 출발점이며 현시대를 ‘시물레이션(simulation)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이 핵심적인 요소였지만, 오늘날에는 시물레이션의 과정이 사회 지배적으로 된다고 보았다. 시물레이션이란 대상물이나 사건들의 재현 혹은 복사를 가리키는데, 이 개념은 근래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에서 널리 주목된 바 있다. 오늘의 모든 삶은 정밀한 시물레이션 속에서 분해되는 동시에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사물은 비현실의 모습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 만들어진 대상물과 경험, 즉 ‘하이퍼리얼리티(극실재)’의 외양을 띤다. 이 세계에서는 더 이상 오리지널이라는 것은 없고 어느 의미에서는 오리지널과 모사물의 구별도 없다는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오늘날 그 어느 것도 리얼리티가 공허한 기호로 바뀌는 현상에 저항할 수 없다고 한다. “기호는 현실세계를 지시하지 않고 한 기호에서 다른 기호로 라는 순서로 받고 돌려 줄 뿐이다.”<sup>5)</sup> 달리 말하면 자연은 이제 더 이상 문화와 상징적 대립관계에 있는 본래적으로 특수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 하나의 시물레이션 모델, 즉 유통과정에 재투입된 자연 기호의 소비된 모습으로 “르시클라주(recyclage)<sup>6)</sup>된 자연”이다. 이러한 르시클라주된 자연은 거대한 도시에 포위되고 녹지대나 자연보호구역의 형태로, 아

4) 장 보드리야르의 개념으로 시물라시옹의 원뜻은 ‘흉내내다, ~척하다’는 의미이지만, 보드리야르는 어떤 실체를 모방한다는 의미가 완전히 소실된 사태를 가리켜 이렇게 불렀다.

5) 장 보드리야르, 1994. 배영달 역. 『생산의 거울』. 백의, p.41.

6) 원래의 뜻은 ‘재교육’, 즉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 등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지식이나 학식을 시대흐름에 맞게 재충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좀더 넓게 보면 주기적으로 변하는 유행이나 외모·건강에 대한 투자(다이어트, 성형, 건강진단 등) 등도 르시클라주에 포함된다.

니면 별장의 배경으로 바둑판처럼 구획되어 '갇혀버린 채로' 제공되며 전본 상태로 전락한, 전원 형태로서의 자연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도시 속 자연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통해 작품 속에서 사회적 현상을 살피게 하는 중요한 인식의 틀이었다.

## 2) 도시 속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소비사회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의 시뮬라크르 시대,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은 자연인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몇 곳은 자연보다 더욱 자연스럽고 환상적인조경을 연출하는 곳도 있다. 마치 시뮬라크르의 대표적인 모델인 디즈니랜드처럼 말이다.

미국의 상징인 동시에 미국의 현실을 감추는 역할을 한 디즈니를 모델로 생산된 제품들은 전 세계로 팔려나가는데 구매자가 구입하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미국의 환상인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 하고 세계도 처에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제 관광객들은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환상을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디즈니랜드처럼 자연도 하나의 환상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도시와 멀리 떨어져있는 산이나 계곡에 가야만 볼 수 있었던 자연 경관들을 고스란히 도심 속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하지만 자연을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이 마치 여러 가지의 필터를 거쳐 나온 정수된 물처럼 되었다. 그 어떤 맛도 느낄 수 없는 물처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연을 하나의 모습으로 획일화시켰으며 더 나아가선 키치(Kitsch)<sup>7)</sup>적인 행태의 자연이

7) 저속한 작품'이라는 뜻. '싸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 동사 'verkitschen'에서 유래된 말. 미술 평론가인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는 1939년 '아방가르드와 키치'라는 논문에서 "키치는 간

등장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주변에 개발을 통해 건설된 아파트촌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자기가 지은 아파트가 더욱 살기 좋은 곳이라 광고들을 하지만 실상 그곳에 가보면 그렇지 못한 공간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고층건물로 인해 햇빛조차 들지 않는 공간에 나무를 심어 놓고 호수니 폭포니 하는 수경시설을 만들어 무릉도원에서 나올법한 모습으로 꾸며 놓았다. 전기모터가 없이는 흐를 수 없는 폭포와 물길, 구색을 맞추기 위해 번식할 수없는 환경에 물고기를 풀어놓고 자연과 하나 된 모습을 연출한다.

그리고 고급 아파트로 가면 더욱 가관이다. 지리산에서 잘살고 있는 아름드리나무를 뽑아 조경 구획 안에 집어넣고 마치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온 수호신 마냥 주변을 꾸며놓고 팻말에는 나이와 어디서 왔는지까지 붙여놓고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이러한 아파트촌의 모습은 본인으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이 분당인지 일산인지 모르게끔 우후죽순으로 퍼져있다.

아파트촌을 벗어나 도로의 가로수 또한 자연이 하나의 패션 트렌드처럼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로수는 플라타너스를 지나 은행나무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뽕나무와 소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시청이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인양 환경개선이라는 명목 하에 바뀌주지만 어느 것 하나도 개성이 있는 모습은 없다. 한 지역이 소나무를 심으면 물에 물감이 퍼지듯 다른 지역도 원래 있던 것을 뽑아 버리고 같은 나무를 심는다. 지역에 따르는 기후도 생각지 않고 화병에 꽃꽂이를 하듯 꾸며놓았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의 청계천을 필두로 모든 지역의 개천이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복제되어지듯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져있는 상황이다.

분명 이러한 것들이 자연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그 안에는 아무런 생물도

---

접 경험이며 모방된 감각이다. 키치는 양식에 따라 변화하지만 본질은 똑같다. 키치는 이 시대의 삶에 나타난 모든 가짜의 요약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키치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재즈와 할리우드 영화, 광고 일러스트레이션도 키치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현재 이러한 것들은 키치라기보다는 대중문화로 간주된다. 오늘날 이 용어는 조악한 감각으로 여겨지는 대상들을 아우르는 뜻으로 사용된다.

살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인간만을 위해 특화된 공간, 순환이라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큰 역할을 단순히 전기 순환모터에 의지하고 있는 박제된 자연의 모습들 속에 더 이상 자연(自然)은 도시를 비롯한 인간의 사회에서 상실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없어진 것을 대신하여 채워진 모조품으로 시물레이션, 의사(擬似)<sup>8)</sup>체험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로 주변에 가로수를 세워 놓고 마치 자동차를 타고 '자연'속에 있는 듯한 거짓된 체험을 '소비'한다. 인간관계 역시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점원의 미소, 안내원의 이상한 말투와 같이 친밀함을 만들어서 마치 우리가 친밀한 인간관계를 거짓 체험함으로써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되어질 수 있는 '상품', 곧 '사물'이 되었다. 더 이상 자연을, 동물을 체험할 수 없게 된 인간은 동물원을 만들어 자연 속의 동물들을 의사 체험하며 그것을 소비한다. 식물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호수공원과 산책로, 분재니, 화분이니 하는 것도 아파트라는 사회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의사 체험일 뿐이다.

소비가 근간으로 이뤄져있는 사회, 그로인해 기호화 되어버린 자연,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여 의사 체험을 하는 상황을 작품을 통해 자연이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며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작품에 수용하게 되었다.

---

8) '의사하다 (실체와 비슷하다)'의 어근.

## 2. 작품의 조형적 특성

### 1) 재료적 특성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주로 등장하는 시멘트와 금속 볼트와 너트, 철은 현재 도시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건축 재료이다. 【작품 1, 2】에서 시멘트는 자연을 감싸고 있는 현대도시의 건축물이 주는 수직수평구조를 재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다. 현대도시에서 땅을 정사각의 평 단위로 나누는 것처럼 도시의 구획을 표현하였으며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단위형태인 기단, 기둥, 지붕을 시멘트를 사용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통해 균일화되고 획일화 된 모습이 정리가 되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삭막하고 차가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었다.

【작품 1, 2, 3, 4】에서 쓰인 자연의 복제품에도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현대도시의 건축물은 거푸집을 통해 동일한 형태의 건물을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 획일화된 공간을 만들어 획일화된 자연을 집어넣는다. 이러한 상황을 획일화된 자연의 모습, 마치 거푸집에서 나온듯한 느낌을 주고자 상징적인 의미로서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작품 4, 5】에서는 작품 전체의 구조와 구조사이를 결합을 통해 잡아 주고 있는 볼트와 너트 그리고 꺾쇠와 각철 각관들 역시 현대도시에서 비취지는 산업사회, 대량생산의 상징적인 효과를 재질감과 물질이 갖고 있는 반복되는 형태의 생산된 건축자재라는 의미에서 작품과 부합시킬 수 있다.

### 2) 형태적 특징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 살펴 볼 수 있는 형태적인 특징은 자연물인 원본과 그

것을 시멘트로 복제한 복제물일 것이다. 작품에 직접 쓰인 자연물은 ‘자연(自然)’이라는 말 그대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자연 주변을 돌아다니며 가장 ‘강가 돌 스러운’ 그리고 ‘가장 나뭇가지 스러운’ 자연을 수집한다. 여기서 돌과 나뭇가지를 선택함은 자연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고 도시 속에 존재하는 자연의 모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자연에서 찾은 원본에 틀을 만들고 시멘트를 부어 원본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복제물을 만든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자연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자연을 느낄 수 있게끔 도처에 자연의 겉모습만을 복제해놓은 인간사회를 뜻하며 이러한 복제행위는 산업화를 통한 대량생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술복제시대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Aura)<sup>9)</sup>와 생태계적 순환의 역할은 무시되고, 이로 인해서 인공적이고 알팍한 조경의 한 부분을 꾸며주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재질까지 완벽한 복제가 아닌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만을 시멘트와 철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얼핏 보면 원본과 복제의 구별이 힘들지만 의도적으로 복제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오류들을 일부러 과장되게 남도록 제작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도시를 비롯한 인간사회에서 자연(自然)이 상실됨을 상징하며 동시에 복제를 통해 “어떤 계급의 사람들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sup>10)</sup> 키치(Kitsch)적인 자연을 만들뿐이다.

본인은 이러한 자연을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자 시멘트를 틀에 부을 때 생기는 기포나 틀의 접합부분을 작품을 자세히 감상하려고 다가간 관객들에게 발견되도록 의도하여 표현하였다. 서로 다름을 발견한 관객은 다시금 ‘진짜’를 찾으려 하고 결국 본인의 의도대로 원본은 발견될 것이다. 즉, 관람객들에게

9)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 1892~1940)의 예술이론으로, 예술작품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를 뜻하는 말.

10)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1999, p.154-158

그 속에 있는 원본을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길 유도하면서 "진짜 자연이  
그립다"라는 메시지를 소통하고자 한다.

### 3. 작품분석



【작 품 1】 nature in the city #1

## 【작 품 1】 nature in the city #1

크 기 : 600x600x150mm

재 료 : 시멘트, 나무 모형, 모래

제작년도 : 2010

제작방법 : 우드락을 이용하여 나무가 들어갈 자리를 반복되고 균일하게 채 단 후 벽을 세워 몰드를 만든다. 그리고 만들어진 몰드 안에 시멘트를 부어 건조시킨다. 반복되는 작은 나무는 나무모형재료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심고 모래를 이용하여 덮어주었다.

작품설명 : 콘크리트 바닥에 가로와 세로로 나뉜 균일한 땅에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어놓았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도시 속 자연의 모습을 상징한다. 거대한 콘크리트구조물속에서 우리는 숲을 꿈꾸지만 숲속의 모든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야생 짐승으로부터의 모든 위험은 없애고 조망 권을 해치지 않으며 주차공간을 차지하지 않도록 적당한 나무를 도시 속에 심어 놓는다. 그러나 나무와 땅의 면적, 그 외의 모든 것은 자산으로 환원시켜 '소비'될 수 있는 사물로 만든 현대의 자본주의와 소비사회의 모습 속에서 숲은 규격화가 된다. 이러한 규격화된 도시의 자연의 모습을 단순화시켜 표현하였다.



【작 품 2】 nature in the city #2

## 【작 품 2】 nature in the city #2

크 기 : 600x600x1100mm

재 료 : 시멘트, 철 와이어, 고리

제작년도 : 2010

제작방법 : 나무판재를 이용하여 기단, 기둥, 지붕의 형태의 몰드를 만든 후 시멘트를 부어 굳힌다. 그 후 굳은 덩어리들은 건축의 기본 형상으로 조합한다. 자연에서 수집한 돌은 실리콘으로 그 형상을 떠 원형몰드를 만들고 시멘트를 부어 굳혀 반복적으로 복제물들을 만들어낸다. 자연석은 원형몰드 작업 후 지붕의 네 귀퉁이에 와이어를 이용하여 공중에 띄운다.

작품설명 : 본 작품은 도시에서 보여지는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 시멘트로 그 형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이 수직 수평구조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덩어리로 안전성을 보장받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본의 자연석이 팽팽한 와이어에 매달려 있고 그 밑에는 자연석의 복제물들이 쌓여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회색 공간의 공허함을 채우고 위로를 받기위해 다시금 예전의 모습인 자연(自然)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소비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소비되어지는 상품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연 또한 하나의 소비되어지는 이미

지로 만들었다. 그로 인해 자연은 하나의 상품이 되었고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통해 찍어 나오는 상품처럼 도시를 채워갔다. 하지만 아우라가 사라진 자연은 더욱 공허한 도시를 만들게 됨을 나타내고 있다.



【작 품 3】 nature in the city #3

### 【작 품 3】 nature in the city #3

크 기 : 가변설치

재 료 : 시멘트, 나무, 자연석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 시멘트로 반구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크기가 다른 아크릴 반구를 겹쳐서 반구형태의 몰드를 제작하고 그 안에 시멘트를 부어 굳힌 다음 빼내어 건조 시킨다. 그리고 자연석과 나무는 자연에서 수집을 한 후 실리콘을 이용하여 복제를 위한 원형몰드를 제작한다. 다 제작된 원형몰드에는 시멘트를 부어 굳힌 후 빼내어 건조시킨다.

작품설명 : 본 작품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바가지의 모양에 자연에서 채취한 돌과 나무가 들어있고 그 외의 것은 그것을 본 따서 만든 복제물들이 원본과 같은 모양으로 펼쳐져있다. 여기서 시멘트로 된 바가지형상은 오늘날의 회색의 도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의 수집물들과 그의 복제물들은 도시 속 이미지가 된 자연공간이 복제라는 오늘날 놀라운 기술을 통해 더욱 확장되는 것을 나타내며 갈수록 거대해지는 도시들, 도시만큼이나 거대해진 복제된 자연공간에서 우리는 어느 것이 원본이고 복제인지 분간하기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 시작된 복제된 공간은 어느 지역을 가도 비슷비슷한 형

태로 결코 지역적 특색을 찾아볼 수 없는 신도시처럼 만들어 버린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작 품 4】 nature in the city #4

#### 【작 품 4】 nature in the city #4

크 기 : 가변설치

재 료 : 시멘트, 나뭇가지, 자연석, 철, U-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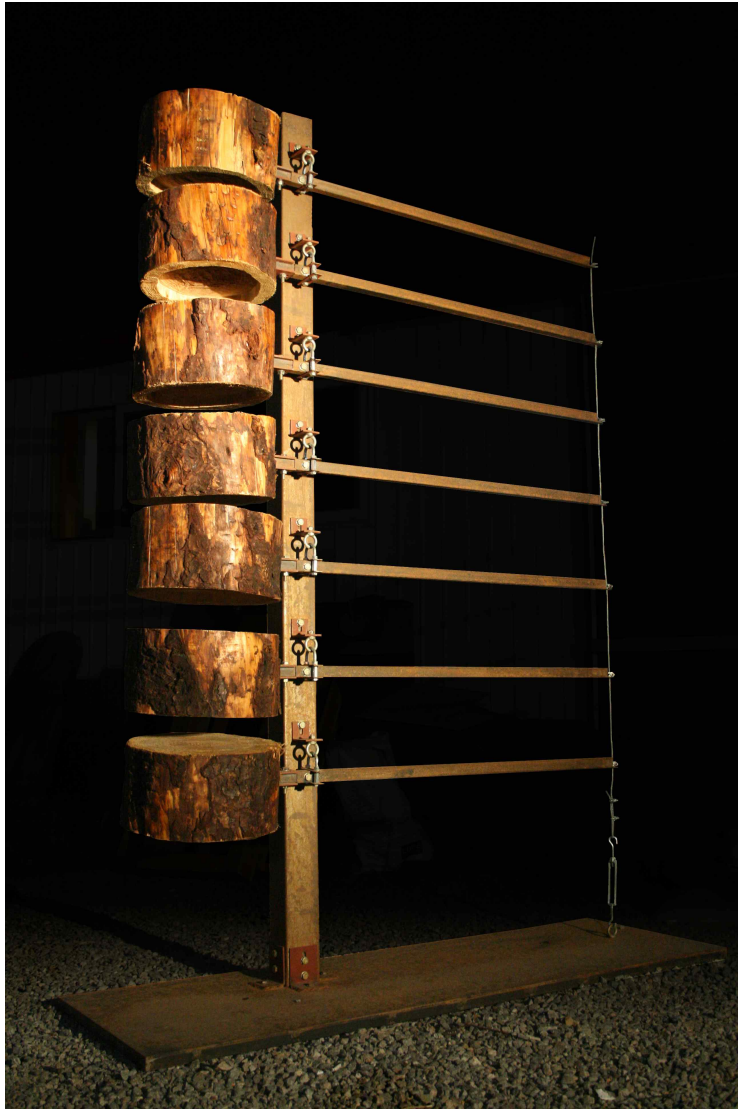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 강가에서 자연석을 채취, 실리콘을 이용하여 복제를 위한 원형 몰드를 제작한다. 제작한 원형몰드에 시멘트를 부어 굳힌 후 건조시킨다. 그리고 자연석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위해 녹을 묻혀 왁스로 표면처리 하였다. 나뭇가지는 산에서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철 환봉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깎고 다듬어서 채취해온 나뭇가지와 같은 형상으로 조각한다. 이렇게 완성된 두 유닛을 u-볼트를 용접하여 만든 유닛에 채집한 돌과 나뭇가지, 복제된 돌과 철로 만든 나뭇가지를 각각 접합시켜 하나의 개별유닛으로 만든다. 좌대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소용접을 이용하여 원으로 절단하고 위에 각관을 용접하여 완성한다.

작품설명 : 본 작품은 철로 만들어진 좌대부분 위에 u-볼트라는 건축 재료로 결합되어있는 자연물과 겉모습만 자연인 복제물들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서있다. 여기서 철로 만들어진 좌대부분과 돌과 나뭇가지를 하나로 잡아주는 u-볼트는 건축에서 쓰이는 재료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인위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온 자연물은 도시 안에서 필요로 인해 원하는 것만 취해진 자연의 모습이며 도시 속 자

연의 획일화는 복제물들을 통해 나타내고자하였다. 복제된 돌들은 원본과 쉽게 구별되지 않게 하기위해 표면을 원본과 같도록 녹을 묻혀 왁스 처리하였다. 하지만 일부러 복제과정 중에 생길 수 있는 몰드와 몰드사이의 경계선이나 주입구 자국, 기포들을 과장되게 남겨 보는 이로 하여금 자세히 관찰하면 구분이 될 수 있게 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자연의 원형과 그것의 복제본을 구분하게 함으로서 자기 실생활 환경 속에서 존재하는 자연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 보고 자연과 인간과의 ‘공존’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의도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유닛들을 바람에 흔들리게 한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이리저리경계선 사이를 움직이는 우리가 만든 공간, 어떠한 것이 원본이고 복제인지 분간은 못하지만 ‘이것이랄도 있으니 다행이다’하며 스스로 위안하고자하는 의미 또한 담겨있다.



【작 품 5】 nature in the city #5

## 【작 품 5】 nature in the city #5

크 기 : 1800x600x2400mm

재 료 : 철, 나무, 볼트, 너트, 와이어

제작년도 : 2011

제작방법 : 하나의 나무를 같은 크기로 자르고 건축에서 쓰이는 재료인 볼트와 너트, 각관과 u-볼트 등을 이용하여 잘라진 각각의 나무 덩어리와 결합시켜 하나의 유닛으로 만든다. 결합시킨 각각의 유닛은 세워진 각관에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키고 와이어에 연결한다. 여러 유닛들과 연결된 와이어는 철판으로 제작된 바닥부분과 연결시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 준다.

작품설명 : 본 작품은 철 구조물에 토막 난 나무들이 볼트와 너트, 와이어를 통해 억지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있다. 철 구조물은 도시를 형성하는 수직수평의 구조를 의미하며 토막 난 나무는 인위적인 공간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거된 자연의 모습을 말하고자함이다. 갇혀있는 자연을 상징하는 잘린 나무토막은 도시를 상징하는 철 구조물에 의해 처음에는 균형을 잡고 있는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는 건조과정을 통해 갈라지고 변형이 된다. 그로인해 그 균형은 조금씩 틀어져간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인위적인 회색 구조물과 복제된 자연으로 언제까지 억지로 균형을 잡으며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파괴에 가까운 개발과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경시설들로 채워진 공간속에 자연은  
우리와 얼마나 균형을 잡으며 유지할 수 있을 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 Ⅲ. 결 론

우리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다.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의 여러 생명체들과 공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자연은 밀려나게 되고 그 자리에 회색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등장하였다.

그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다시금 자연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생명도 살지 않으며 그저 눈으로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가짜’자연이다. 이러한 ‘가짜’자연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확장과 함께 더욱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짜’는 어느덧 ‘진짜’가 되어 마음의 휴식과 위로를 주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본인은 이러한 현상을 현사회의 모습인 소비사회와 시물라크르를 인용하여 설명하였고 오늘날 자연이 ‘구획되어 갇혀버린 채로’ 제공되며 근본상태로 전락한 전원 형태로서의 자연을 시멘트와 철 그리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이용하여 현시점의 도시 속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시 속 자연의 반복되어지는 자연공간의 모습을 원본과 복제라는 방식을 통해 현시점의 도시 속 자연의 시물라크르적인 모습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으며 본인 작품을 통해 원본에서 찍어낸 가짜를 더욱 진짜처럼 보이도록 작업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작품 속 복제본을 진짜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관람객들에게 복제본임을 알려줌으로서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속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금 작품 속에서 어느 것이 진짜 원본이고 가짜 복제본인지를 찾게 한다.

이러한 행위를 유도함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진짜 자연이 그림다’라는 메시지를 소통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품을 통해 느낀 것처럼 무심코 지나쳤던 도심 속 자연공간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자연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공간은 없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걸모습에 속지 않고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냉철한 시각을 갖게 하고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인은 앞으로 도시 속 자연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지 더 깊이 연구하고 천착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장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1999.

T.B. 베블린, 『유한계급론』, 김성균 역, 우물이 있는 집, 2005.

장 보드리야르, 『섹스의 황도』, 정연복 역, 솔, 1993.

마르셀 모스, 『증여론』, 이상률 역, 한길사, 2002.

장 보드리야르, 『생산의 거울』, 배영달 역. 백의, 1994.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거름, 1999.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미진사, 2011.

박정아, “미디어에 나타난 시뮬라크르이미지의 해석과 시뮬라크르시대의 역할 연구”, 경원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건실, “시뮬라크르, 그래픽디자인시각구성물에 관한연구”,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09.

# ABSTRACT

Nature in the city expression on the  
original and replication research  
- On the basis of my work -

Lim, sung hoon

Dept. of

Public Art

Special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Design and Arts

Sungshin Womem's University

Today looking around our neighbored environment, we come to find out that new cities have been created, as nature is behind in the name of "Redevelopment." Mountains were pulled down and rivers were filled. Then, some structures were built, such as apartments and their by-products including huge shopping centers and entertainment areas. These structures are expressed in various types of design in their structural form or their neat appearance such as that of an appartement in terms of its spatial design.

Until those spaces specialized for men are made, nature requires its enormous sacrifice. To construct standardized buildings as if they were produced in a factory, nature is divided in length and breath

dimensions and things against these dimensions are filled and cut. This leads nature to disappear. Thus, all things are dimensionalized and in the systemized empty land imitations after the model of nature have been put.

The place where we destroy nature in the name of civilization and we can see the unnatural aspect of living carrying the artificial nature translated and copied from Mother Nature, i.e., the space where we mistake the artificial nature for the origin as if living coexisting with nature, is our current, neighbored environment.

Seeing such features today, French philosopher and sociologist Jean Baudrillard (1970) expressed those features in his work:

"The Consumer Society, "Modern men prefer signs to functions and hyper - reality, which is more realistic than the reality as the existence for imitation is gone, produced as seen in a theory that imitated images substitute for the reality."

This is the entire look of the modern society where we are living. He said that due to problems with capitalist conception all things constituting a city is regarded as an object, which is estimated into a property and consumed. He added that the consumption is done as an image, not for functions and that such a social background allows people to think of nature as an image, like simulacre. Walking around more natural, neat, and well-trimmed parks and beautiful rivers with figures that could be seen in a fantasy movie, we come to feel as if nature had been taxidermied. This makes me think what

the nature where I had spent my childhood was and what the current nature that became like simulacra is.

Such a look and my thought led me to be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where we are living and the nature existing in it, and served as a motivation in shaping my work.

This study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materials-symbolism, expression ways, and theme of my work.

In Chapter 1 - Introduction, I described the motivation of my work that I wanted to express the nature in the city, and the purpose of my study.

In Chapter 2 - Discussion, I described the theoretical and structural background of my work as well as the intention of production through the image of my work for the explanation on individual works.

In Chapter 3 - Conclusion, I described the ultimate purpose of my work by generalizing the contents of this study, established the view of workshop afterwards, and presented the direction to be pursued.